

LG화학, 저소득층 청소년 화학캠프

LG화학은 1월 10-22일 저소득층 청소년 400여명을 초청해 젊은 꿈을 키우는 화학캠프를 진행한다.

화학캠프는 화학 마술쇼, 실험실 등 프로그램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행사로 LG화학이 2004년부터 시작했다.

임직원과 협력기업 직원의 자녀를 대상으로 했던 화학캠프를 2011년부터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확대했으며, 앞으로도 교육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계층 청소년을 돕는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1/01/13>